

朝鮮 後期 宮中舞踊服飾의 服色思想 研究(I)

-육화대 · 무산향 · 춘앵전을 중심으로-

남 후 선

대경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Colors of Court Dancing Suits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 Centering around dances YukHwaDae · MuSanHyang · ChoonAengJeon -

Hoo-Sun Nam

Dept. of Fashion Design, Taekyung College

ABSTRACT

The court dancing suit, so-called "JeongJae(呈才) suit," has been worn by court dancers on the occasion of the royal court's feasts or festivals such as auspicious events of a country, court banquets, and parties or receptions for national quests from foreign countries. There are 53 kinds of court dancing suits, ranging from the age of the ancient Three Kingdoms to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court dancing suits are divided into two styles: DangAk-JeongJae(唐樂呈才) style and HyangAk-JeongJae(鄉樂呈才) style, depending on dancing styles. Since the court dancing suits in the age of the ancient Three Kingdoms and Koryo Dynasty have already been studied previously, this study discussed the change of dancing suit styles created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such as YukHwaDae(六花隊), MuSanHyang(舞山香) and ChoonAengJeon(春鶯囀), and the thought of Yin-Yang and five elements(陰陽五行思想) that the colors of the court dancing suits imp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houghts contained in the ancient suits as well as their styles in order to inherit and uphold our traditional culture properly.

Key words : court dancing suit(궁중무용복식)

I. 序 論

궁중무용복식은 일명 呈才服飾이라고도 하는데, 정재복식은 춤의 형식에 따라 唐樂呈才服飾¹⁾과 鄉

樂呈才服飾²⁾으로 나눈다.

朝鮮王朝는 性理學的 儒敎理念을 政治的으로 實現하려는 정치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새왕조였기 때문에, 政治外交의 수단으로 禮와 樂을 중요시하

여 이 時代에 秀才가 많이 創製³⁾되었고 창제된 秀才는 藝術의 안무의 구성보다 開國創業을 칭송하고 上朝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뜻이 들어 있는 춤이었다.¹⁾

조선시대 궁중무용복식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조선전기의 당악정재에는 몽금척, 근천정 수명명, 수보록, 六花隊, 하성명, 하황은이 있으며, 향악정재에는 봉래의 향발무, 학무, 교방가요, 문덕곡이 있다. 조선후기의 당악정재에는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제수창, 최화무가 있고, 향악정재에는 가인전목단, 경풍도, 고구려무, 공막무, 관동무, 광수무, 만수무, 망선문, 舞山香, 박점무, 보상무, 영지무, 침향춘, 침수무, 침승무, 초무, 춘광호, 춘대옥축, 春鶯囀이 있다.

궁중무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들이 다소 있으나⁵⁾ 본 연구는 문헌적⁶⁾인 고찰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정조 19년·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광무 5년의 병풍과 진연·진찬·진작의례에 나타난 회화자료를 보조 자료로 사용하여, 궁중무용이 발생된 시점을 중심으로 삼국시대⁷⁾ 고려시대⁸⁾ 조선시대 발생된 무용복식을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궁중무용복식에 스며 있는 음양오행사상을 살펴 올바른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궁중무용복식 중 복식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六花隊, 舞山香, 春鶯囀服飾만을 다루기로 한다.

II. 朝鮮時代 宮中舞踊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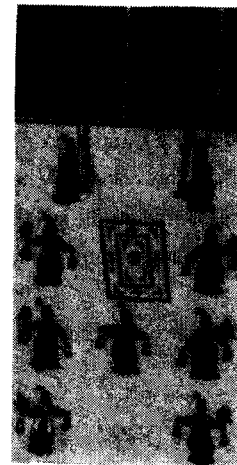
1. 六花隊服飾

六花隊는 여섯사람이 각각 꽃을 들고 궁궐의 풍경과 봄철의 꽃을 찬미하면서 추는 꽃 춤을 추는 당악정재이다.

「樂學軌範」에는 동쪽에는 홍의 3인, 서쪽에는 남의 3인으로 무인이 갈라져 각각 일념시, 이념시, 삼념시를 번갈아가며 차례로 부른다. 그런데 조선 조 말기의 「秀才舞圖笈記」(高宗 30年, 癸巳, 1893)

에 의하면 동서 6인의 옷 빛깔이 각각 달라 원무 6인중, 동쪽에 위치한 3인은 홍의 위에 옥색·자적·양남색의 패자를 입고, 서쪽에 위치한 3인은 남의 위에 초록·진홍·분홍색의 패자를 입고 있어 여섯가지 꽃 빛깔을 나타내었다.⁹⁾고 하나 복식의 명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육화대의 구체적인 복식을 시대별로 나타보면 <圖 1>은 연세대학교 소장의 광무5년 육화대로 앞에는 2인의 여령은 죽간자를 들고 있는데 화관·남색상·홍초상·황초삼·수대를 입고, 아래에는 7인의 여령이 있는데 화관·황초삼·남색상·오색한삼을 입었는데 동쪽의 3인은 여령의 옷위에 초록·남·양남색의 패자를, 서쪽의 3인은 옥색·진홍·분홍색의 패자를 입어 여섯색의 꽃빛을 나타내었으며, 중앙의 여령은 주황색(금황색)의 패자를 입고 있다. 光武 辛丑 「進饌儀軌」·「進宴儀軌」卷3 工伶條에 보면 “六花隊 秀才女伶은 화관·녹초단삼·이남색상표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록혜에 紅·藍·紫的·粉紅·草綠·玉色·金香掛子를 입는다”¹⁰⁾라고 있는데 <圖 1>의 복색과는 여령의 황초삼이 녹초삼으로 변화되었고 그위에 입는 패자의 색깔도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6색을 하고 있다. 또 卷3 樂器風物條에 “六花隊의 服飾은 掛子7件(紅·藍·草綠·粉紅·玉色·金香·紫的花紋甲紗로 함)과 戰帶7件(藍鱗紋甲紗로 함)을 입고 6인



<圖 1> 光武 辛丑, 六花隊

만 꽃을 들었다.”¹¹⁾라고 있다.

<圖 2>는 광무6년 육화대로 외연에는 무동이, 내연에는 여령이 추고 있는데 춤의 배치는 <圖1>과 같다. 光武 壬寅 「進宴儀軌」卷3 工伶條에 보면 “六花隊呈才女伶은 화관·녹초단삼·이남색상표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록혜에 紅·藍·紫的·粉紅·草綠·玉色·金香掛子를 입는다”¹²⁾고 했다. 무동복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 무동복인 花冠·(丹)衣·金花羅帶·紅羅裳·紅紉襖裙·繡草鞋를 착용한 것 같다.¹³⁾



<圖 2> 光武 壬寅, 六花隊

六花隊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1>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六花隊의 죽간자 여령은 일반 정재여령복식(화관·이남색상표홍초상·황초삼이나 녹초삼·수대·초록혜·오색한삼)을 착용했다. 그러나 중심에서 춤추는 六花는 일반정재 여령

<表 1> 六花隊服飾의 時代的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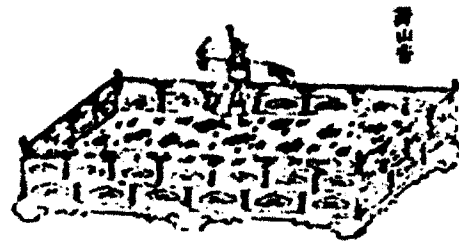
	출처	상의	하 의	대	관	신 발	기 타
女伶	光武5年 (1901, 신축) 「進宴儀軌」 「進宴儀軌」	紅·藍·紫的·粉紅·草綠·玉色·金香 快子, 綠綉單衫	裏藍色裳 表紅綉裳	紅緞金鍍 繡帶	花冠	草綠鞋	五色汗衫
女伶	光武5年 (1901, 신축) <연세대학교박물관>	草綠·藍·兩藍·玉色·粉紅·眞紅·金香掛子, 黃綉衫	紅綉裳	繡帶	花冠		五色汗衫
女伶	光武6年 (1902, 임인) 「進宴儀軌」	紅·藍·紫的·粉紅·草綠·玉色·金香 快子, 綠綉單衫	裏藍色裳 表紅綉裳	紅緞金鍍 繡帶	"	草綠鞋	"
舞童	"	(丹)衣	紅羅裳 紅紉襖裙	金花羅帶	花冠	繡草鞋	

복 위에 패자를 더 입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육화는 여섯가지 꽃이므로 이들의 六色 패자색을 입었다.

2. 舞山香服飾

舞山香은 翼宗이 지었다고 전하는데 舞山香은 春鶯囀에 비하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舞山香을 처음으로 춘 것은 純祖 28년 6월 進爵에서 舞童이 처음 추었다. 高宗 14년 이후에는 女伶이 행하였다. 純祖때 창제된 春鶯囀과 같이 혼자 추는 춤으로, 舞童이나 여령 한 사람이 대모반에 올라가 춤을 추는 향악정재이다. 舞山香의 의상과 춤사위는 春鶯囀과 유사하나, 春鶯囀은 화문석 위에서만 추고, 舞山香은 대모반 위에서만 추게 되어 장중하면서도 활달한 느낌을 주어 春鶯囀과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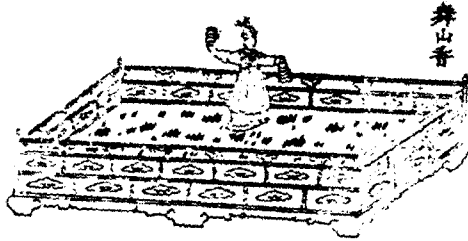
무산향의 복식형태를 살펴보면 <圖 3>은 순조28년 무산향으로 대모반 위에서 무동이 혼자서 추고 있다. 純祖 戊子「進爵儀軌」卷附編 工伶條에 “舞山香舞童은 硯光帽·藍紗內拱紅羅窄袖衣·金詞子·



<圖 3> 純祖 戊子, 舞山香

白質黑線裳·綠羅掛子·綠紗汗衫·鶴頂也帶·凌波履를 입었다.”¹¹⁾ 고 했다.

〈圖 4〉는 고종21년 무산향으로 대모반 위에서 여령이 혼자서 추고 있다. 高宗 丁亥 「進饌儀軌」 卷首圖式에 金訶子·草綠掛子·紅窄袖衣·五色汗衫·紅繡鞋를 신었다.



<圖 4> 高宗 丁亥, 舞山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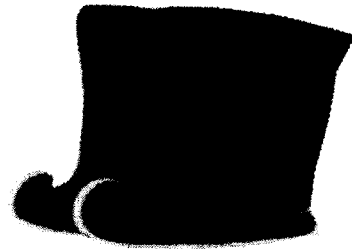
高宗 壬辰 「進饌儀軌」 卷3 工伶條에 “舞山香呈才女伶은 花冠·안감인 藍緞인 紅甲紗窄袖衣·金訶子·紅納裳·綠紗掛子·五色汗衫·藍戰帶·眞紅緞鞋를 신었다.”¹²⁾ 고 했다. 卷3 樂器風物條에 “舞山香服飾은 花冠(首拱花 4가지와 唐假花 8가지를 꽃음)을 쓰고, 窄袖(겉감은 粉紅花紋甲紗로 하고, 안감은 藍鱗紋甲紗로 함)와 掛子(겉감은 草綠花紋甲紗로 하고, 안감은 紅鱗紋甲紗로 함)를 입고, 戰帶(藍鱗紋甲紗로 길이는 八尺이고 넓이는 三寸五分임)를 띠고, 金訶子(藍雲紋緞 一尺으로 하고, 金箔을 찍음)를 하고, 汗衫(七色花紋甲紗로 함)을 하고, 紅貢緞繡鞋를 신었다.”¹³⁾ 라고 있다.

舞山香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2>와 같다.

<表 2> 舞山香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 처	상의	하의	대	관	신발	기타
舞童	純祖 28年 (1828, 무자) 「進饌儀軌」	卷附編 工伶條	紅羅窄袖衣, 綠羅快子	白質黑線裳	鶴頂也帶	硃光帽	凌波履 金訶子 綠紗汗衫
女伶	高宗 14年 (1877, 정축)· 高宗 24年 (1887, 정해) 「進饌儀軌」	卷首, 圖式	紅羅窄袖衣, 草綠掛子		藍戰帶	花冠	紅繡鞋 五色汗衫 金訶子
女伶	高宗 29年 (1892, 임진) 「進饌儀軌」	卷3, 工伶條	紅甲紗窄袖衣, 綠甲紗掛子	紅納裳	藍戰帶	花冠	眞紅緞鞋 五色汗衫 金訶子

〈表-2〉에 나타난 바로서 복식의 시대적인 변화는 알 수 없으나, 복식 형태구성상의 여령복식과 무동복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舞山香服飾은 舞童과 女伶의 상의가 재질면에서만 다를 뿐 형태가 비슷함을 볼 수 있고, 홍색착수와와 녹색패자·착수의 외 겉감과 안감은 남색의 상반된 색을 사용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舞童과 女伶의服飾구성 형태가 같은 것은 舞山香의 춤사위가 동적이므로, 소매가 좁은 착수의 위에 패자를 입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고 또한 금가자라고 하는 cape 모양의 독특한 형태의服飾을 사용하였다. 舞童일 경우 녹색의 단색한삼을 사용하여 독무의 아름다움을 더욱 화려하게 돋보이고자 한 것 같다. 금가자는 50여종의 문才服飾중에 유일하게 사용된服飾형태이다. 무동의 한삼은 녹색의 단색한삼을 사용하여 독무의 아름다움을 더욱 화려하게 돋보이고자 한 것 같다. 금가자는 50여종의 문才服飾 중에 유일하게 사용된 복식형태이다. 무동의 신은 <圖 5>와 같은 凌波履로 검은 곰가죽 바탕에 청사사피로 꽃무늬를 수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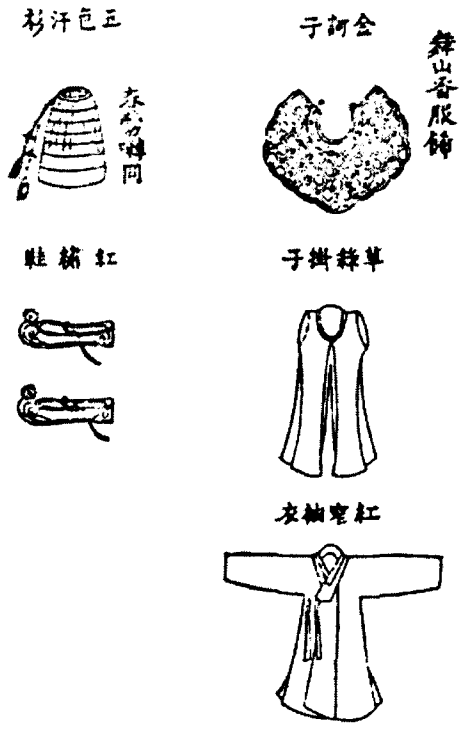


<圖 5> 「리조복식도감」, 凌波履

무산향복식(圖 6, 圖 7)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 6> 「리조복식도감」, 舞山香服飾



<圖 7> 高宗 丁亥, 舞山香服飾

1) 窄袖衣

착수의 소매가 좁은 형태로 걸감은 홍색이고 안감은 남색이며, 소매끝에 화문을 금박한 남색끝

동을 달았고 깃은 직령이다. 純祖 28년 舞山香 舞童服飾의 착수의는 재료를 羅로 하였으나, 高宗 24년 이후 舞山香 女伶服飾은 갑사를 사용한 점만 다를 뿐 형태는 동일하였다. 高宗29년 악기풍물조에 착수의 재료는 “걸감은 분홍화문갑사, 안감은 남린문갑사로 한다.”

2) 掛子

패자는 전복이라고도 하며, 등술은 길게 트고 옆선은 약간 튼 소매없는 옷을 말한다. 劍器舞의 패자는 아청색·자색을 주로 사용하나 高宗29년 악기풍물조에 “걸감은 초록화문갑사, 안감은 홍린문갑사로 한다.”고 하여 舞山香은 녹색의 패자를 사용하고 있다.

3) 金訶子

금가자는 홍착수의와 초록패자를 입은 후, cape와 같은 형태를 목에 둘러 뒤에서 단추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舞山香에만 쓰는 독특한 것이다. 高宗29년 악기풍물조에 “남운문단”으로 하였다.

4) 藍戰帶

전대는 劍器舞와 舞山香의 패자 위에 맨 띠이다. 高宗29년 악기풍물조에 “남린문갑사”로 하였다.

이외 신발은 홍공단수초혜를 신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春鶯囀服飾은 소매가 넓은 황초삼을, 舞山香은 소매가 좁은 착수의 위에 패자를 입는 점이 크게 달랐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무산향은 활발하고 동적인 춤사위를 위해 소매가 좁은 착수의 위에 패자를 입었고 특히 금가자를 하여 독무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

3. 春鶯囀

春鶯囀이란 당나라의 高宗이 어느 봄아침 버들가지에서 지저귀는 피꼬리소리에 감명을 받고 백명달이란 악공에게 명해 그 소리를 묘사하게 한 묘사음악 春鶯囀곡을 얻은 것에 기인한다.¹⁷⁾

春鶯囀은 純祖의 원자인 효명세자가 부왕을 대

리하여 섭정이 되었을 때, 마침 모후인 순원숙황후의 보령 40세를 경축하기 위한 進宴때 세자가 특별히 창제한 것이다. 春鶯囀은 鄉樂모才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춤의 동작이 유연하고 정적이다. 특히 화문석의 좁은 공간위에서 느린 사위로 살포시 추는 동작은 매우 여성적이고 춤사위중 흰 이빨을 드러내고 곱게 웃는 모습을 화전태라고 하는데 이 춤의 백미를 이루는 부분이다.

純祖 29년 進爵에서는 舞童모才로 처음 추어졌다가, 純祖 29년 進饌에서는 女伶모才로서의 春鶯囀이 선을 보이는 것을 시초로 高宗말까지 女伶이 행하였다.

<圖 8>은 순조28년 춘앵전으로, 무동 1인이 화문석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 純祖 戊子 「進爵儀軌」卷附編 工伶條에 “春鶯囀 舞童은 硯絹帽·白質黑線窄袖衣·玉色質黑線裳·綠紗掛子·紅汗衫·烏紗帶·胡靴를 신었다.”¹⁸⁾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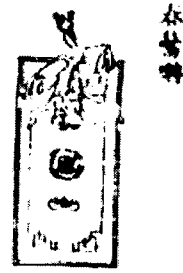
<圖 8> 純祖 戊子, 春鶯囀

<圖 9>는 순조29년 춘앵전으로 화문석 위에서 1인의 여령이 추고 있다. 純祖 己丑 「進饌儀軌」卷3 工伶條에 “春鶯囀 女伶은 花冠·黃絹單衫·紅絹裳·草綠霞帔·紅緞金縷繡帶·五彩汗衫·紅錦繡鞵·草綠鞋를 신었다.”¹⁹⁾고 했다.



<圖 9> 純祖 己丑, 春鶯囀

헌종14년 춘앵전은 여령이 행하였는데 춤의 배치는 <圖 10>과 같다. 憲宗 戊申 「進饌儀軌」卷3 工伶條에 “春鶯囀 女伶은 花冠·黃絹單衫·紅絹裳·草綠霞帔·紅緞金縷繡帶·五色汗衫·紅錦繡鞵·草綠鞋를 신었다.”²⁰⁾고 있고 卷3 樂器風物條에 “춘앵전복식은 花冠을 쓰고, 羅衫(안감은 紅桃榴紋甲紗, 걸감은 黃花紋甲紗로 하고, 領 및 古襟은 紫의 桃榴紋甲紗로 하고, 양 어깨의 色同과 方領은 眞紅·草綠·紫의 色의 花甲紗로 함)을 입고, 五色甲紗의 汗衫을 하고, 臂鞵(안감은 藍大緞, 걸감은 紅貢緞으로 함) 한쌍을 하고, 霞帔(草綠佛手緞으로 함)를 늘어뜨리고, 繡帶(眞紅佛手緞으로 길이는 5척 넓이는 4寸이고, 양끝은 草綠佛手緞으로 方四寸이고, 金符을 찍음)를 띠고, 裳(眞紅桃榴紋甲紗로 하고, 腰纓은 白花甲紗로 함)을 입고, 紅貢緞繡鞋를 신었다.”²¹⁾라고 있다.



<圖 10> 光武 辛丑, 春鶯囀

高宗 癸酉 「進爵儀軌」卷3 工伶條에 “春鶯囀 女伶은 花冠·黃絹單衫·紅絹裳·草綠霞帔·紅緞金縷繡帶·五色汗衫·紅錦繡鞵·眞紅緞鞋를 신었다.”²²⁾

高宗 丁丑 「進饌儀軌」卷3 工伶條에 “春鶯囀 女伶은 花冠·黃絹單衫·紅絹裳·草綠霞帔·紅緞金縷繡帶·五色汗衫·紅錦繡鞵·眞紅緞鞋”²³⁾를 신었다.

<圖 10>은 광무5년 춘앵전으로 여령 1인이 화문석 위에서 추고 있다. 光武 辛丑 「進饌儀軌」卷3 工伶條에 “春鶯囀 女伶은 花冠·黃絹單衫·紅絹裳·草綠霞帔·紅緞金縷繡帶·五色汗衫·紅錦繡鞵·眞紅緞鞋”²⁴⁾라고 있고, 또 卷3 樂器風物條²⁵⁾에 복식이 상세히 나와 있다.

光武 壬寅 「進宴儀軌」卷3 工伶條에 “春鶯囀 呈才 女伶은 花冠·黃綃單衫·紅綃裳·草綠霞帔·紅緞 金縷繡帶·五色汗衫·紅錦繡鞵·眞紅緞鞋²⁶⁾”라고 있고, 卷3 樂器風物條에 “춘앵전복식은 花冠에 首拱花 4가지와 唐假花 8가지를 꽃고, 상의는 羅衫(안감은 眞紅桃榴紋甲紗, 겉감은 黃花紋甲紗로 하고, 纓 및 古攄은 紫의桃榴甲紗로 하고, 양어깨의 色同 및 方領은 眞紅·紫的·黃·草綠甲紗로 方五寸로 함)을 입고, 하의는 裳(眞紅桃榴甲紗로 하고, 腰纓은 白甲紗로 함)을 입고, 繡帶(紅貢緞으로 하고, 양 끝은 草綠貢緞으로 함)를 띠고, 紅貢緞繡草鞋를 신었다.”²⁷⁾라고 있다.

春鶯囀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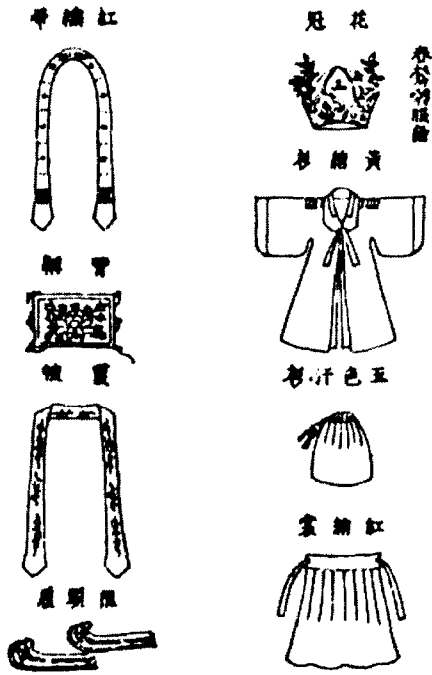
<表-3>에 의하면 무동의 복식은 여령의 복식만큼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녹색의 패자와 옥색의 치마로 모두 간색을 사용하였고, 한삼의 색은 홍색을 사용하여 독무로서 다른 묘才에 사용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服色으로 표현한 것 같다.

여령복식은 초록하피나 홍금수구와 같은 다른 묘才에서 사용하지 않는 服飾을 더함으로써, 춘앵전만이 지닌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독무로서의 개인적인 미의 과시와 服飾으로서의 화려함을 나타냈다. 춤의 내용이 시간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어서 복식도 시대적으로 거의 변함없이 착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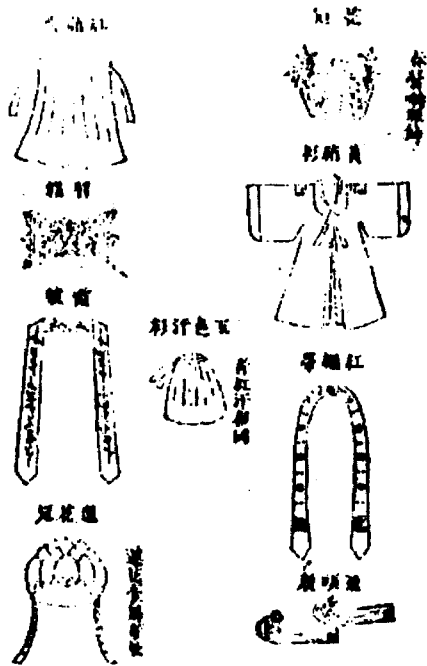
복식구성에 따른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 春鶯囀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의	하의	대	관	신발	기타	
舞童	純祖 28年 (1828, 무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綠紗掛子 白質黑線 窄袖衣	玉色質 黑線裳	烏紗帶	硃絹帽	胡靴	紅汗衫	
女伶	純祖 29年 (1829, 기축) 「進儀儀軌」	卷3 工伶條	黃綃衫	紅綃裳	紅緞金縷 繡帶	花冠	草綠鞋	草綠霞帔, 五色汗衫, 紅錦繡鞵	
女伶	憲宗 14年 (1848, 무신) 「進儀儀軌」	卷3 工伶條	黃綃單衫	"	"	"	"	草綠霞帔 五色汗衫 紅錦臂鞵	
		卷首 圖式	黃綃衫	"	紅繡帶	"	飛頭履	臂鞵, 霞帔, 玉色汗衫	
女伶	高宗 10年(1873, 癸酉) 「進爵儀軌」, 高宗 14年 (1877, 정축)· 高宗 29年 (1892, 壬辰)· 「進儀儀軌」	卷3 工伶條	"	"	"	"	眞紅草鞋	草綠霞帔 五色汗衫 紅錦繡鞵	
			卷3, 工伶條	"	"	"	"	"	"
			卷首, 圖式	黃綃衫	"	紅繡帶	"	飛頭履	臂鞵, 霞帔, 玉色汗衫
女伶	光武 5年 (1901, 신축) 「進儀儀軌」	卷3, 工伶條	黃綃單衫	"	紅緞金縷 繡帶	"	眞紅草鞋	草綠霞帔 五色汗衫 紅錦繡鞵	
		卷首, 圖式	黃綃衫	"	紅繡帶	"	飛頭履	臂鞵, 霞帔, 玉色汗衫	



<圖 11> 憲宗 戊申, 春驚齣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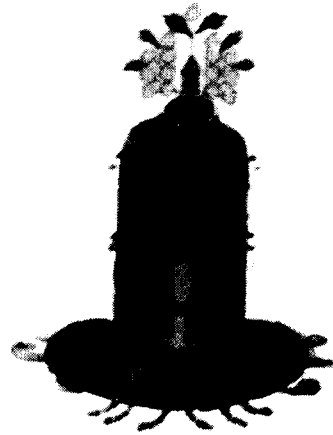
<圖 12> 光武 辛丑, 春驚齣服飾



<圖 13> 「리조복식도감」, 황초삼

1) 花冠

春驚齣女伶의 花冠은 一般女伶의 花冠과는 달리 <圖 14>에 나타나 있듯이 관위에 복숭아꽃의 조화를 장식하여 훨씬 아름답고 화려하다. 순조 기축 진찬의례에서 화관은 장식이 많아 높이가 높은 것으로 중앙에 동자모양을 부착하고 비녀와 흥도별간화를 장식하였다.



<圖 14> 「리조복식도감」, 花冠

憲宗 戊申 「進饌儀軌」에 보면 花冠의 재료는 흑창라(1척3촌), 생포(5척), 금화문(금박5장), 두석화잠(1개), 계잠(2개), 수공화(4지)로 되어 있고, 花冠골목의 재료는 가목으로 한다.²⁸⁾고 했다.

2) 黃綃衫

一般女伶들은 황초삼이 高宗 光武5年 以後에는 녹초삼으로 바뀌나, 春鶯囀은 여전히 피꼬리를 상징하는 노란색의 황초삼을 高宗말까지 입었다. 황초삼은 두리소매이며 무와 섶이 없고, 깃은 앞중심에서 마주닿은 대금형태이며, 뒤가 트여 잇고 끝둥이 달려 있다. 憲宗 戊申「進饌儀軌」에 보면, “황초삼의 재료는 걸감은 황화문갑사(15척), 안감은 홍화문갑사(15척), 깃과 고름은 자적도유문갑사(2척), 양어깨 색동감은 진홍초록자적화갑사(각 방5촌)로 한다.”²⁹⁾고 했다.

3) 紅綃裳

一般女伶들과 같은데, 상의 재료를 憲宗 戊申「進饌儀軌」에서 살펴보면, 걸감은 진홍도류문갑사(3척), 허리끈은 백화갑사(2척)³⁰⁾이라고 있다. 걸감이 3척으로 1m도 안되는 길이인데 이것을 주름잡아 치마를 만들면, 앞치마와 비슷한 덧치마형태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홍초삼이란 긴 치마 위에 겹쳐 입은 앞치마와 비슷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繡帶

春鶯囀女伶이 사용한 대는 홍수대로 화문의 금박을 찍었다. 대의 재료는 憲宗 戊申「進饌儀軌」에 진홍불수단(길이 5척, 넓이 4촌)과 대의 양끝에 초록불수단(방4촌 짜리 2개)을 단다.”³¹⁾고 했다.

5) 鞋

憲宗 戊申「進饌儀軌」春鶯囀服飾 圖式에는 비두리를 憲宗 戊申 악기풍물조에는 홍공단수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코부분의 장식의 날아갈 듯이 뾰족하고, 재료는 一般女伶들의 신발이 초록혜인 것과는 달리 홍색으로 하였다.

6) 臂鞵

비구는 한쌍의 팔찌와 비슷한 것으로, 양손목에 두르는 것이다. 「樂學軌範」에 아악의 순·탁·요·탁·응아·상·독을 잡는 공인이 착용하는 비구의 형태가 있는데, 비구는 다듬은 흰 명주로 꿰매어 만들고,

금문을 그리며, 안은 홍색 명주를 쓰고, 안에는 양털 전을 붙이며, 네 모퉁이에 홍색 명주끈을 단다.³²⁾라고 있으며, 憲宗 戊申「進饌儀軌」에는 비구 한쌍에 걸감은 홍공단, 안감은 남대단으로 각각 5촌, 수화감으로 초록남백공단 4촌, 영자감으로 남다회 2건으로 길이가 3척이 들어간다.³³⁾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악의 공인이 착용한 것은, 보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 같고, 春鶯囀의 비구는 색상과 文樣도 화려하여 독무인 春鶯囀을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高宗末까지 사용된 것 같다.

7) 霞帔

하피는 신라시대 여복의 표와 같고, 處容舞服의 천의와 같은 것이다. 하피는 목에 걸쳐 양어깨를 지나 의의 끝자락까지 내려뜨리고, 그 위에 대를 매어 윗부분을 고정시키는 일종의 견대다. 憲宗 戊申「進饌儀軌」에 하피의 재료를 보면, 초록불수단(길이 6척5촌, 넓이 4촌)이다.³⁴⁾라고 있다.

8) 汗衫

春鶯囀 女伶의 한삼은 따로 만들어 끼우도록 되었는데, 憲宗 戊申「進饌儀軌」에 걸감은 오색갑사(각 길이 4촌)로 하고 끈은 남다회(각 길이 2척)로 한다.³⁵⁾고 있으나 春鶯囀 服飾圖에는 옥색한삼을 쓴다고 하여 혼란이 일어난다.

III. 宮中舞踊服色과 陰陽五行思想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양오행학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인간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양오행학이란 五德始終說 또는 五運學說이라고도 하는데 陰陽(天地)의 생성원리를 五行(五元素)과 결합시킨 동양 고유의 사상이다. 음양오행사상이 우리나라 복식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冠服色의 制度³⁶⁾라든가, 활옷의 색동, 圓衫의 색동, 五方丈(까치두루마기)·五方낭자·巫服·旗幟³⁷⁾ 등에는 五方色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의 복식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궁중무용복색에도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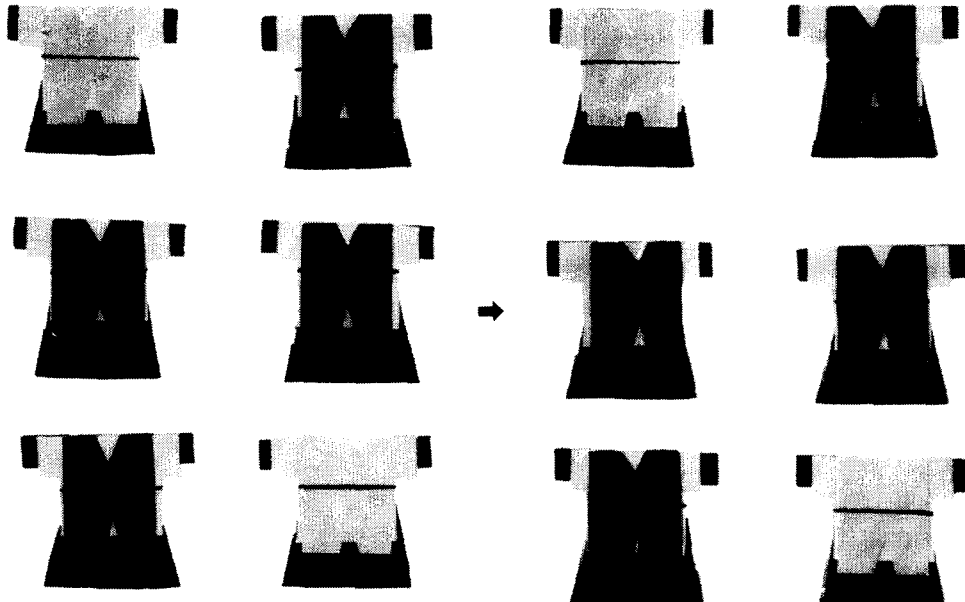
것을 볼 수 있다. 궁중무용복색에 나타난 음양오행 사상의 상생·상극의 조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六花隊服飾

육화대복식은 동·서 6인의 복색이 달라, 일반여령복식 위에 동쪽 3인은 옥색·자적·양남색을, 서쪽 3인은 초록·진홍·분홍으로 되어있다.³⁸⁾ 광무년에는 홍·남·자적·분홍·초록·옥색금향괘자를 입었다.

육화대 여령복색의 상생과 상극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 15>에서 보면 춤추는 6인의 괘자의 색이 각각 다르다. 모두 일반여령복식인 황초삼·홍초삼과 상생의 배색을 이룬다.



<圖 15> 육화대복색

<表 4> 육화대복색과 음양오행

女伶服飾	黃綉衫 綠綉單衫	紅綉裳	紅緞金縷綉帶	草綠鞋	汗衫	快子	戰帶	비고	
	겉감(황색·녹색) 안감(홍색)	이남색상표 홍초삼	바탕(홍색) 兩端(초록)			五色汗衫	홍색·남색·자적·분홍 ·초록·옥색·금향색	藍色	홍-남 홍-황 오색

2. 舞山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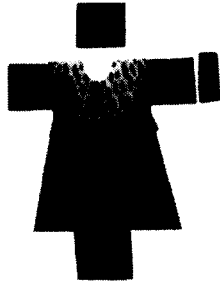
무산향의 복식은 무동이 행하였을 때와 여령이 행했을 때가 있다.

무동의 복식은 상의는 홍라책수의·녹라괘자, 하의는 백질흑선상을 입고 금가자를 둘렀다.

여령의 복식은 홍라책수의(홍갑사책수의)·홍초상·남전대를 띠고 금가자를 둘렀다.

무산향복식을 그 구성별로 상생과 상극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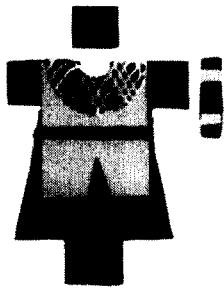
<圖 16>에서 보면 무산향 무동은 상의는 홍색의 책수의와 녹색의 괘자, 상의인 홍색 책수의와 녹색의 한삼에서 홍·청의 상생배색, 중단의 백색 바탕색과 緣의 흑색에서 흑·백의 상생관계를 볼 수 있다.



<圖 16> 무산향 무동복색

<圖 17>에서 보면 무산향 여령은 상의인 초록색의 패자와 하의인 홍색 裳, 책수의의 걸감인 분홍색과 안감인 남색에서 홍·청의 상생배색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무산향의 복색은 홍·청의 배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혼자 추는 춤의 특성을 복식의 화려함으로 잘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圖 17> 무산향 여령복색

3. 春鶯囀服飾

춘앵전의 복식은 무동이 행하였을 때와 여령이 행했을 때가 있다.

무동의 복식은 상의는 백질혹선중단의·녹사괘자, 하의는 옥색질혹선상을 입고 홍한삼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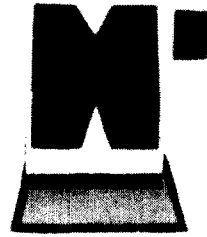
<表 5> 무산향복색과 음양오행³⁹⁾

舞童服飾	紅羅窄袖衣	綠羅掛子	白質黑線裳	金訶子	綠紗汗衫	비고			
	홍색	녹색	바탕(백색) 緣(흑색)		녹색	홍-녹 백-흑	상생 상생		
女伶服飾	紅羅窄袖衣	草綠掛子	紅綃裳	藍戰帶	眞紅緞鞋	七色汗衫	金訶子	비고	
	걸감(분홍) 안감(남색)	걸감(초록색) 안감(홍색)	홍색	남색	홍색		남색 (금박합)	분홍-남 분홍-초록 초록-홍	상생 상생 상생

여령의 복식은 상의는 황초삼, 하의는 홍초상에 오색한삼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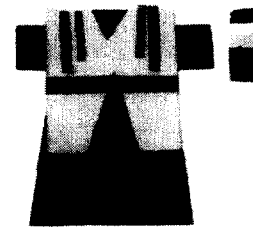
춘앵전복색을 그 구성별로 상생과 상극관계를 보면 <表-52>과 같다.

<圖 18>에서 춘앵전 무동복색을 보면 상의의 녹색패자와 하의인 옥색상은 상극관계이고, 중단의 바탕인 백색과 緣의 흑색은 상생이며, 패자의 녹색과 홍색의 한삼은 상생관계를 이루어 상생·상극의 조화를 이룬다.



<圖 18> 춘앵전 무동복색

<圖 19>에서 춘앵전 여령복색을 보면 황초삼의 황색의 걸감·홍색의 안감, 황초삼과 깃·고름, 상의인 황색의 衫과 하의인 홍색상의 배색에서 황·홍의 상생배색, 비구의 걸감인 홍색과 안감의 남색에서 홍·남의 상생배색, 황초삼의 어깨색동인 진홍·초록에서 홍·청의 상생배색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오색한삼의 색은 오방을 표시하는 색을 썼다.



<圖 19> 춘앵전 여령복색

<表 6> 춘앵전복색과 음양오행⁴⁰⁾

舞童 服飾	白質黑線中單衣	綠紗掛子		玉色質 黑線裳	紅汗衫		비고		
	바탕(백색) 緣(흑색)	녹색		바탕(옥색) 緣(흑색)	홍색		백-흑 녹-홍 옥-흑	상생 상생 상극	
女伶 服飾	黃綃衫	紅綃裳	紅綃繡帶	鞋	汗衫	霞披	臂鞵	비고	
	걸감(황색) 안감(홍색) 領·古音(자색) 肩色同·方領(진홍·초록·紫的)	진홍색 腰纓(백색)	홍색 兩端(초록색)	眞紅綃鞋	五色汗衫	초록색	걸감(홍색) 안감(남색) 纓子(남색)	황-홍 황-자 홍-남 진홍-초록	상생 상생 상생 상생

IV. 結 論

이상에서 궁중무복색과 음양오행사상을 살펴 보았다. 무복의 색은 ‘춤’이라는 무희적 성격으로 인해 상생의 조화를 많이 나타내어 밝고 힘있는 느낌을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의와 하의, 걸감과 안감, 바탕색과 緣, 裳과 帶, 걸감과 깃, 걸감과 고름 등 대부분 청-홍, 홍-남, 적-청, 적-황, 홍-초록, 흑-백 등 상생색의 결합으로 되어 있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의복에서 음양오행의 표현이 미약하거나 색채의 단조로움이 있으면 의물이나 신발, 冠 등으로 색채의 전체적 조화를 이룬 것이며, 특히 오색한삼의 사용에서 오색이란 꼭 오방색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색’의 표현으로 춤의 생동감을 가장 잘 표현해주었다. 옷의 배색 방법은 천에 물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단색으로 되어 있는 각각 다른 천으로 상생·상극배색을 하였다.

육화대복식은 황초삼·홍초상 위에 홍·남·자·적·분홍·초록·옥색의 6색의 패자를 입어, 여섯 가지 꽃빛깔을 상징하였으며 춤의 방위와 의복색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산향은 춤사위가 동적이므로, 활동하기에 편리한 소매가 좁은 녹색의 협수의 위에 홍색의 패자를 입고, 금가자란 독특한 모양의 복식을 착용하여 독무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춘앵전의 무동복식은 녹색패자·옥색질혹선상·홍한삼을 하였고, 여령은 피고리를 상징하는 황초삼·홍초상·초록하피·홍금수구에 오색한삼이나

오색한삼을 사용하였다. 즉 춘앵전복식은 다른 정재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식을 더 함으로써, 춘앵전만이 가지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독무로서의 미의 과시와 복식으로서 화려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궁중무용복색은 시대에 따라 색채의 변화가 있기는 해도 궁중무용의 의의를 고수하려는 의지에 따라 복색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올바른 전통문화 계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및 미주

<古 書>

- 「世祖實錄」→「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世宗實錄」→「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肅宗實錄」→「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英祖實錄」→「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太祖實錄」→「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太宗實錄」→「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高宗 24年(1887) 「進饌儀軌」 4卷,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
- 高宗 29年(1892) 「進饌儀軌」 4卷,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
- 光武 5年(1901) 「進饌儀軌」 4卷,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
- 光武 5年(1901) 「進宴儀軌」 4卷,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
- 光武 6年(1902) 「進宴儀軌」 4卷,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
- 成俔, 「樂學軌範」, 影印本, 民族文化推進黨, 1983.
- 純祖 27年(1827) 「慈慶殿進爵整禮儀軌」 2卷,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
- 純祖 28年(1828) 「進爵儀軌」 3卷,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
- 純祖 29年(1829) 「進饌儀軌」 4卷,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
- 正祖 19年 「園幸乙卯整理儀軌」,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4.

<단행본>

- 琴基淑, 「朝鮮服飾美術」, 열화당, 1994.
-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7.
- 金英子, 「韓國의 服飾美」, 민음사, 1992.
- 金用淑, 「朝鮮朝宮中風俗研究」, 一志社, 1987.
- 金元龍外, 「檀園 金弘道」, 中央日報社, 1991, 「韓國의 美 21」
- 金원웅의, 「風俗叢」, 中央日報社, 1991, 「韓國의 美 19」
- 金홍경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成慶麟, 「韓國傳統舞蹈」, 一志社, 1979.
- 劉頌玉, 「朝鮮時代 宮中儀軌服飾」, 修學社, 1991.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8.
- 李八燦, 「리조복식도감」, 東文選, 1991.
- 임동권, 「韓國民俗學論考」, 집문당, 1984.
- 林永周, 「韓國文樣史」, 미진사, 1983.
- 장사훈, 「韓國舞蹈概論」, 大光文化社, 1984.
- 조규하, 「服飾美學」, 수학사.

<논문>

- 이주원, "李朝後期 宮中女舞服에 관한 研究", 복식6호, 1982.
- 김영자 "궁중여무복색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조선조 후기를 중심으로-", 「동방 학지」 4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 金銀梨, "朝鮮宮中呈才服飾과 衣物에 관한 研究- 純祖 이후를 중심으로 -"
- 김천홍, "궁중무용의 유형별 고찰", 「무용한국」, 춘하호, 1990
- 申惠英, "延世大學校 博物館所藏 光武5年 進宴圖의 服飾", 이화여대 석사학 위, 1990.
- 李柱原, "朝鮮後期 宮中男舞服에 관한 研究 - 純祖 이후를 중심으로-" 「문화재」 16호, 1983.
- 張師勛, "韓國傳統舞蹈 序說", 「민족음악」 창간호, 서울대부설: 민족음악.
- 채명순, "한국전통 무용복의 문헌적 고찰", 숙명여대 석사학위, 1985.
- 한옥희, "궁중정재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1974.

- 1) 당악정재: 춤을 인도하는 竹竿子가 있으며, 開場(무대에서 舞團이 입장 하는 때)과 收場(무대에서 舞團이 물러가는 때) 격식을 갖추는 口號와 致語가 반드시 수반되며 당악반주에 맞추어 한문으로 된 창사를 죽간자와 부원이 부른다.
- 2) 향악정재: 竹竿子의 인도 없이 무대에 바로 들어가 큰절을 하고 俯伏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춤을 시작했다가 일어나서 물러가는 것으로 춤을 마친다. 향악정재는 우리말로 된 노래를 부른다.
- 3) 「太祖實錄」卷1, 元年 7月 · 卷4 2年7月, 「太宗實錄」卷

- 22, 11年 潤12月 25日, 「世宗實錄」, 12年 7月, 「世宗實錄」卷40, 10年 5月 · 卷57, 14年 9月, 「肅宗實錄」卷64, 45年 9月, 「純祖實錄」卷30, 28年 2月 · 29年 6月, 純祖 27年 · 28年 「進爵儀軌」, 光武 辛丑 「進饗儀軌」 「進宴儀軌」卷3 工伶條, 光武 壬寅 「進宴儀軌」卷3 工伶條 등의 實錄이나 儀軌 등에 기록이 있음.
- 4) 金梅子, 「韓國舞蹈史」, 琴研齋, 1977, p.90.
- 5) 이순자, '조선왕조시대 樂人服에 관한 연구', 「복식」5호 1981.
박진아 · 조우현, '처용무복식의 연구', 「한국의류학회」, 제21집, 1997.
신혜영,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광무 5년 진연도의 복식',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6) 성종24년 「樂學軌範」, 숙종45년 「進宴儀軌」, 정조19년 「園幸乙卯整理儀軌」, 순조27년 · 순조28년 「進爵儀軌」, 순조29년 · 헌종14년 · 고종5년 「進饗儀軌」, 고종10년 「進爵儀軌」, 고종14년 · 고종24년 · 고종29년 · 광무5년 · 광무6년 「進宴儀軌」 등
- 7) 남후선, '宮中舞蹈服飾에 관한 研究(제1보)-삼국시대 발생된 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제22권 제2호 1998.
- 8) 남후선, '宮中舞蹈服飾에 관한 研究(제2보)-고려시대 발생된 무용을 중심으로-', 「복식」, 제41호 1998.
- 9) 高宗 癸巳 「呈才舞圖笏記」, 『韓國音樂學資料叢書』卷四, p.194.
- 10) 光武 辛丑 「進饗儀軌」 · 「進宴儀軌」, 卷3 工伶條
六花隊呈才女伶服色竝同各舞呈才女伶而着紅藍紫的粉紅草綠玉色金香掛子
- 11) 光武 辛丑 「進饗儀軌」 · 「進宴儀軌」, 卷3 악기풍물條.
六花隊差備所著服飾七件所入掛姿七件次(紅藍草綠粉紅玉色金香紫的花紋甲紗各四尺五寸) 戰帶七件次(藍鱗紋甲紗十四尺)各色花子六枝
- 12) 光武 壬寅 「進宴儀軌」, 卷3 工伶條.
六花隊呈才女伶服色竝同而各舞呈才女伶而各着紅藍紫的粉紅草綠玉色金香掛子
- 13) 光武 壬寅 「進宴儀軌」, 卷3 工伶條.
進宴時...典樂樂工載畫花幘頭紅紬衣烏鞞帶殿上執事樂師執拍典樂...各舞呈才舞童服飾隨其
- 14)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舞山香舞童載研光帽着藍紗內拱紅羅窄袖衣金詞子白質黑線裳綠羅掛子繫綠紗汗衫鶴頂也帶 凌波履
- 15) 高宗 壬辰 「進饗儀軌」, 卷3 工伶條.
舞山香呈才女伶載花冠著藍紬內拱紅甲紗窄袖衣金詞子紅綃裳綠紗掛子繫五色汗衫藍鞞帶眞紅緞鞋
- 16) 高宗 壬辰 「進饗儀軌」, 卷3 樂器風物條.
舞山香差備所著服飾一件所入花冠一件鍍金花簪一箇接只一件(銀蛙簪一箇具)唐只二件次(紫的禾紬七寸五分)鍍金斧簪二箇首拱花四枝唐假花八枝(以上貿用窄袖一

- 件所入(外拱粉紅花紋甲紗內拱藍鱗紋甲紗各十尺實用)掛子一件次(外拱草綠花紋甲紗內拱紅鱗紋甲紗各四尺八寸實用)戰帶一件次(藍鱗紋甲紗長八尺廣三寸五分實用)金詞子一件次(藍雲紋緞一尺付金次金箔四貼實用)汗衫次(七色花紋甲紗各長六寸一片實用)纓及流蘇次(五色真絲二兩五錢實用)紅貢緞繡鞋一部(實用)
- 17) 歐陽子青,「中國舞蹈史」。
“春鶯轉,高宗曉聲律,星坐聞鶯聲,命樂工白明達寫之,遂有此曲…朝鮮「進饌儀軌」
…舞妓服飾…頭戴花冠,着黃綃衫,束紅繡帶足着飛頭履,在日本也有春鶯轉大曲,一名天長實壽樂。”
- 18) 純祖 戊子「進饌儀軌」卷附編 工伶條。
春鶯囀舞童戴研絹帽着白質黑線窄袖衣玉色質黑線裝綠紗掛子繫紅汗衫烏紗帶朝靴
- 19) 純祖 己丑「進饌儀軌」卷3 工伶條。
春鶯囀呈才女伶戴花冠着黃綃衫紅綃裝草綠霞被紅緞金縷繡帶繫五彩汗衫紅錦繡鞵草綠鞋
- 20) 憲宗 戊申「進饌儀軌」卷3 工伶條。
春鶯囀呈才女伶着花冠着黃綃單衫紅綃裝草綠霞被紅緞金縷繡帶繫五色汗衫紅錦繡鞵草綠鞋
- 21) 憲宗 戊申「進饌儀軌」卷3 樂器風物條。
春鶯囀差備所著服飾一件所入花冠一件次(黑冒羅長一尺三寸生布五尺)金花紋次(金箔五張度金半張笠帽子二立鍍金金壽人一箇)豆錫花簪一箇簪二箇簪櫻次(藍多繪一件長三尺紙金一張接只卦簪具一件)首拱花四枝(實用內下唐假花八枝添插)花孔八箇次(細銅絲二尺)花冠骨木次(假木一尺五寸)羅衫一領所入內外拱次(內供紅桃榴紋甲紗外拱黃花紋甲紗各長十二尺五寸)領及古音次(紫的桃榴紋甲紗長二尺)兩肩色同及方領次(真紅草綠紫的花甲紗各方五寸一片汗衫次(五色甲紗各長四寸一片)纓子次(藍多繪二件各長二尺紙金一張)臂鞵一雙所入內外拱次(內拱藍大緞外拱紅貢緞各方五寸二片)繡畫次(草綠藍白貢緞各方四寸一片)纓子次(藍多繪二件各長三尺)霞被次(草綠佛手緞長六尺五寸廣四寸二片)繡帶次(真紅佛手緞長五尺廣四寸一片)兩端次(草綠佛手緞方四寸二片)小纓子四箇次(紅佛手緞長一尺廣二寸一片付金次金箔貼四張)裳次(真紅桃榴紋甲紗三尺)腰纓次(白花甲紗二尺)紅貢緞繡鞋一部…
- 22) 高宗 癸酉「進饌儀軌」,卷3 工伶條。
春鶯囀呈才女伶戴花冠黃綃單衫紅綃裝草綠霞被紅緞金縷繡帶五色汗衫紅錦繡鞵真紅緞鞋
- 23) 高宗 丁丑「進饌儀軌」,卷3 工伶條。
春鶯囀呈才女伶戴花冠黃綃單衫紅綃裝草綠霞被紅緞金縷繡帶五色汗衫紅錦繡鞵真紅緞鞋
- 24) 光武 辛丑「進饌儀軌」,卷3 工伶條。
春鶯囀呈才女伶戴花冠着黃綃單衫紅綃裝草綠霞被紅緞金縷繡帶繫五色汗衫紅錦繡鞵真紅緞鞋
- 25) 光武 辛丑「進饌儀軌」,卷3 樂器風物條。
春鶯囀差備所著服飾一件所入花冠一件廣金花簪一箇接只一件(銀蛙簪一箇具)唐只二件次(紫的禾紬半骨長一尺五寸)首拱花四枝(實用內下唐假花八枝)羅衫一領所入內外拱次(內拱真紅桃榴紋甲紗十兩尺五寸外拱黃花紋甲紗十兩尺五寸纓及古音次紫的桃榴紋甲紗兩尺兩肩色同及方領次真紅紫的草綠花紋甲紗各方五寸一片)汗衫次(五色甲紗各長四寸一片)纓子次(藍多繪二件各長兩尺紙金一張)臂鞵一雙所入內外拱次(內貢藍貢緞外貢紅貢緞各方五寸二片)繡畫次(真紅貢緞長五尺廣四寸一片)兩端次(草綠貢緞方四寸二片)小纓子四箇次(紅貢緞長一尺廣二寸一片付金次金箔一貼四張)裳次(真紅桃榴甲紗三尺)腰纓次(白花紋甲紗兩尺)紅貢緞繡鞋一部
- 26) 光武 壬寅「進宴儀軌」,卷3 工伶條。
春鶯囀呈才女伶戴花冠着黃綃單衫紅綃裝草綠霞被紅緞金縷繡帶繫五色汗衫紅錦繡鞵真紅緞鞋
- 27) 光武 壬寅「進宴儀軌」,卷3 樂器風物條。
春鶯囀差備所著服飾一件所入花冠一件豆錫花簪一箇接只一件(銀蛙簪一箇具)唐只二件次(紫的禾紬半骨長一尺五寸)首拱花四枝(唐假花八枝添插內下)羅衫一領所入(內拱真紅桃榴紋甲紗十兩尺九寸外拱黃花紋甲紗十兩尺九寸纓及古音次紫的桃榴甲紗兩尺兩肩色同及方領真紅紫的黃草綠甲紗各方五寸)裳次(真紅桃榴甲紗三尺)腰纓次(白甲紗兩尺)繡帶次(紅貢緞長五尺廣四寸一片兩端次草綠貢緞方四寸二片)紅貢緞繡鞋一部
- 28) 憲宗 戊申「進饌儀軌」,樂器風物條。
“花冠一件:黑冒羅長一尺三寸生布五尺,金花紋:金箔五張,豆錫花簪一箇簪二箇簪櫻,首拱花四枝,花冠骨木:假木。”
- 29) 前揭書。
“衫:內拱紅花紋甲紗外拱黃花紋甲紗,領及古音:紫的桃榴紋甲紗,
兩肩色同及方領:真紅草綠紫的花甲紗各方五寸。”
- 30) 前揭書。
“裳:真紅桃榴紋甲紗三尺,腰纓:白花甲紗二尺。”
- 31) 前揭書。
“繡帶:真紅佛手緞長五尺廣四寸。”
- 32) 「樂學軌範」卷9。
“臂鞵:白紬縫造畫錦紋裏用紅紬內着羊毛氈四隅有紅紬纓子。”
- 33) 「樂學軌範」卷9。
“臂鞵:白紬縫造畫合錦紋裏用紅紬內着羊毛氈四隅有紅紬纓子。”
- 34) 上揭書。
“霞被:草綠佛手緞長六尺五寸廣四寸。”
- 35) 上揭書。
“汗衫:五色甲紗各長四寸,纓子:藍多繪長二尺。”

- 36) 金英淑, “韓國 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研究”, 숙명여
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216.
林瑞雲, “古代 東洋 服色制度의 比較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p.107-121.
- 37)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朝鮮時代 宮中服飾」, 1981,
pp.153-181.
- 38) 高宗 癸巳 「呈才舞蹈笏記」.
- 39)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高宗 壬辰 「進饌儀軌」, 卷3 樂器風物條.
- 40)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憲宗 戊申 「進饌儀軌」, 卷3 樂器風物條.
高宗 壬辰 「進饌儀軌」, 卷3 樂器風物條.